

농촌마을의 향토자원과 비보(裨補)경관과의 관계

-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 of Local Resources and BiBo Landscapes of Agricultural Villages

- Focused on Yeoungdong Area in Gangwon Province -

유 종 덕* 윤 영 활** 최 장 순***
You, Jong-Deok Yoon, Young-Hwal Choi, Jang-Soon

Abstract

In our traditional living lives, our ancestors have been succeeded in and developed the shortage-replenishing materials to balance with the nature and supplement the condition of geography by the measures, called the BiBo, in order to be harmonized with the nature. This study is purposed to find the meaning and quality of the BiBo materials distributed throughout the agriculture village in Yeoungdong area, Gangwon province in terms of scenery perspectives. It is found that there are 56 village forests, 18 BiBo symbolic properties and 2 BiBo ponds in Yeoungdong area, Gangwon province. Among these, village forests are largely consisting of pine trees and most of them are functioned for water-entrance defender. Including these village forests, the BiBo symbolic properties are important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in this area and expected to be used as the income-source of the farm village.

키워드 : 마을 숲, 연못, 상징물, 비보경관

Keywords : Village Forests, Ponds, Symbols, Bibo Landscapes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조상들은 예로부터 하늘과 땅과 인간은 하나라는 천·지·인(天·地·人) 합일사상을 근간으로 자연을 존중하고 애호 하면서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여 왔다. 또한 자연과의 상생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비보(裨補)¹⁾라는 수단이 자연과의 균형과 지리적 조건을 보완하는 해결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 주거 문화 속에 계승, 발달되었다. 이러한 주거환경 내 지리 환경적으로 부족하거나 허한 곳을 인위적인 식재나 조산·돌담·숫대·장승, 연못 등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한 비보적 경관학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의 농촌 마을에는 아직도 이러한 자연과 인공이 조화되도록 가꾸거나 조성된 비보적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소중한 공간이 보존되어 남아 있으며, 전통 마을 숲이나 조형물 등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특히 전통 마을 숲은 최근에 농촌마을의 주요 경관요소로 부각되면서 국토 및 지역적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국토해양부의 경관법, 농림수산부의 경관보전직불제, 기후변화 대응의 녹색 정책 등과 더불어 마을 숲의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녹색 자원적 가치로도 중요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마을에는 도시지역에서 대부분 사라진 비보경관 문화가 다 행히 보존되고 있는 곳이다. 농촌 마을 경관의 비보에 대한 연구는 수백 년에 걸쳐 보존되어 살아남은 마을 숲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 취락지역에 조성된 전통 마을 숲은 비보적 성격의 마을 숲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숲 이외의 경관적 비보시설인 연못이나 기타 상징조형물이 일부 남아있다.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대도시화가 비교적 적고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 결과 비보적 성격의 마을 숲과 비보 상징물 등이 타 시·도에 비해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이러한 비보적 성격의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통 마을 숲을 비롯한 비보경관물의 전반적 문화자원의 조사와 체계적 보존 및 관리가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종합적 자원 실태가 파악되지 못해 아직도 취약한 마을 공동체 관리에 머무는 등 체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 강원 영서지역의 비보경관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로서 강원 영동지역에 분포 되어있는 비보적 성격의 경관적 향토자료를 조사하여 농촌마을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그 향토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 정희원, 강원대학교(주저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정희원, 강원대학교(교신저자) 산림경영·조경학부 교수, 농학박사

*** 정희원, 강원대학교 공학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1) 비보에 대한 정의는 유종덕·윤영활·최장순의 “강원 영서지역 농촌마을의 입지와 비보(裨補)경관과의 관계,”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1권, 1호, 2009.02, pp.9~16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 보존과 그 활용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강원 영동지역 농촌마을에 분포하고 있는 비보적 마을 숲과 비보 조형물 등을 현장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기능과 경관적 가치를 분석하여 농촌마을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보존과 활용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은 강릉시·속초시·동해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현장 중심의 확인, 검증, 분석 단계로 조사하였다. 강원 영동지역 농촌마을에 조성된 비보적 마을 숲과 조형물의 분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강원도 숲 군락지 조사 대장 그리고 각종 향토지 등 기초 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각 시·군 별로 분포되어 있는 비보 경관적 소재를 파악하였다.

비보적 가치의 검증 과정은 마을 전래, 구전 및 현장 주민의 인터뷰 채록 등 자료와 현장의 입지 환경 및 형국(形局)을 분석한 후 그 비보적 기능과 특성을 도출하였다. 비보적 유형의 범주는 풍수적 비보와 민간 신앙적 비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조사하였고, 그 비보 수단인 숲·상징물·연못 등을 구분하여 비보 개념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을 숲의 세부조사는 숲의 비보 기능, 숲의 입지(평지, 산지, 하천형), 숲의 위치(마을 앞, 마을 중앙, 마을 좌·우)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마을 숲은 평균 100년 이상 된 수령의 마을 숲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숲의 수령은 마을 역사와 전래, 구전 그리고 기존 향토자료 등의 추정치를 활용 하였다. 숲의 규모는 기존 향토자료, '강원도 마을 숲 군락지 대장' 등 자료와 지적도, 임야도 등을 활용하여 숲의 크기(대형, 중대형, 중형, 중소형, 소형)를 비교하였다.

2. 비보(裨補)의 연구사적 고찰

근래의 비보에 관한 연구는 국문학, 지리, 민속, 역사, 건축, 불교, 조경 등 여러 분야 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 경관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하다. 국문학 분야의 유증선(1973)은 '안동의 비보풍수신앙전설과 그 배경'에서 안동지방의 비보풍수 전설을 근거로 성내(城內) 10개의 조산(造山) 및 화산(火山)²⁾과 연지(蓮池) 등 9개의 '압승(壓勝)³⁾비보'를 예를 들어 비보적 풍수의 신앙적 요인과 영향을 조사하였다. 불교 분야에서 서윤길(1975)은 도선의 비보사상을 해석한 '도선과 그의 비보사상'에서 비보사상의 배경을 밀교적(密敎的)⁴⁾ 측면에서 접

근하여 해석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역사분야의 신중원(1980)은 '비보장생의 기원과 관념에 대한 시론'에서 장승의 기원, 지역별 명칭, 형태에 관하여 그 향토적 정서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민속학의 김의숙(1992)은 '강원도의 돌탑신앙'에서 비보상징물을 민속신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또 '비보풍수연구'(2003)에서 비보의 유형을 지명변경형, 지형변경형, 수계변경형, 보완장치형, 행위형, 사찰건립형, 안산설정형 등으로 구분하여 그 비보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지리학 분야의 김덕현(1986)은 '전통부락의 동수(洞藪)'에 관한 연구에서 안동의 수구막이로 심어진 개호송(開湖松)을 비보와의 관계에서 해석하였고, 최원석(2000)은 '영남지방의 비보'에서 "비보는 자연적 성국(成局)의 결처를 보완하여 인위적으로 길국(吉局)을 형성하는 것으로 인간이 자연환경과 상생·조화관계를 맺으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리사상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영남지방을 사례로 그 비보적 양상을 개념적으로 체계화하여 비보적 수단이 경관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조경 분야에서는 김학범(1991)의 '한국의 마을 원림에 관한연구'를 시작으로 전통마을 숲에 관한 구체적인 비보의 경관적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고문헌과 현장답사를 통해, 조성배경과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또 김정태 등(1999)은 '강원지역 임수(林藪)⁵⁾의 전통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강원지역 임수의 전통적 기능을 조사한 결과 종교적 기능, 생산적 기능, 방재적 기능, 군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임수가 조성되었음을 밝히고 이를 다시 교통적 기능, 풍치적 기능, 이용적 기능 등의 측면에서 주로 강원 해안지역 마을 숲의 경관 문화적 가치를 구명하였다. 유종덕 등(2009)은 '강원 영서지역 농촌마을의 입지와 비보경관과의 관계'에서 강원 영서지역의 농촌에 분포하는 마을 숲을 비롯한 돌탑, 석탑, 장승, 솟대, 연못 등에 대한 비보 경관적 특징과 기능을 시·군별로 조사하여 농촌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비보 경관적 개념을 현대적 시각에서 조사한 연구는 각 분야 별로 문헌 및 현장 유적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강원지역 농촌마을의 비보 수단은 마을 숲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비보조형물인 돌탑·조산·장승·솟대·연못 등에 대한 비보 경관적 연구는 보존된 것이 상대적으로 적어 많지 않다. 현재 농촌마을의 비보경관자원은 도시민의 주말 농촌마을 체험과 탐방이 증가되면서 농촌의 마을 숲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음양오행에 의한 분류로 봉우리가 불꽃같이 뻗족하여 화기(火氣)가 있는 산으로 화형산(火形山)이라고도 한다.

3) 지리환경의 과한 여건을 빼고 누르는 원리로 압승(壓勝) 혹은 진양(鎭穡)이라고도 하며 지나친 것을 억누르거나 깎아서 완벽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김두규, 풍수학사전, 2005, p.212

4) 밀교는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경전, 주문, 진언을 이르는 말로 7세기 후반 인도에서 성립한 불교의 한 갈래로 밀교에서 만다라를 건

립할 터를 정하는 방법으로 밀교택지법이 있다. 김두규, 풍수학사전, 2005, p.177

5) 수(藪)는 '늘 수' 또는 '나무 수'로서 임수는 자연적인 산림 이외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으로 초목이 백백이 우거진 습지나 수풀을 말한다.

표 1. 영동지역의 시·군별 조사 마을 숲

소재지	숲 이름	숲 위치	숲 입지	숲 기능	구성 수종	수령 (년)	규모	비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원암숲	마을앞	하천변	수구막이 소나무	180	중형		
	노학동	양지말숲	마을중	평지	우백호형국보완 소나무	300	중형		
속초시	노학동	판봉숲	마을右	산지	수구막이 소나무	200	중형	서낭목	
	상도문동	학무정숲	마을앞	하천변	수구막이 소나무	120	대형	정자	
	중도문동	중도문숲	마을앞	도로변	수구막이 소나무	120	중소형		
	대포동	용지숲	마을뒤	산지	마을수호 소나무산죽	100	중형	서낭당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낙산숲	마을左	해변	飛沙방지 소나무	150	대형		
	양양읍 주청리	동해미송	마을左	해변	비사방지	곰솔	120	대형	동해신묘
	손양면 상운리	상운정숲	마을左	해변	비사방지	소나무	100	대형	
	현북면 원일전리	금풀애숲	마을뒤	하천변	후현무형국보완	소나무	150	중소형	
	현북면 말곡리	물안골숲	마을앞	산지	안산	소나무	150	중소형	서낭목
	서면 내현리	내현숲	마을입구	하천변	수구막이	소나무	150	중소형	
	현남면 포매리	백로숲	마을뒤	산지	후현무형국보완	소나무	200	대형	
	현남면 인구리	해송천숲	마을中	하천변	마을수호	소나무	200	소형	서낭터
	현남면 입암리	임호숲	마을中	하천제방	수구막이	소나무	150	소형	
	주문진읍 향호리	향호숲	마을입구	평지	수구막이	소나무	200	중형	서낭목
	주문진읍 교향리	신리천숲	마을右	평지	마을수호	소나무	150	중대형	서낭목
	연곡면 송림리	송림	마을앞	평지	수구막이	소나무	150	대형	서낭당
	연곡면 퇴곡리	퇴곡숲	마을입구	평지	우백호형국보완	소나무	200	중소형	
	연곡면 유등리	유등숲	마을앞	평지	수구막이	소나무	100	중소형	
	연곡면 삼산리	삼산숲	마을中	산지	마을수호	갈참나무	200	중형	서낭당
연곡면 삼산리	장천숲	마을앞	평지	수구막이	소나무갈참나무	200	중소형	서낭목	
사천면 미노리	사천입수	마을입구	평지	수구막이	소나무	120	대형		
사천면 덕설리	취송정숲	마을입구	평지	수구막이	소나무	150	중소형	亭子	
사천면 사기막리	사기막숲	마을앞	평지	수구막이	갈참나무 소나무	120	중형	돌탑	
홍제동	홍제입수	마을앞	하천변	수해방지	소나무	140	대형		
회산동	회산입수	마을뒤	하천변	우백호형국보완	소나무	120	대형		
회산동	두산숲	마을中	평지	마을수호	소나무회화나무	500	중소형		
죽현동	오죽현숲	마을뒤	산지	후현무형국보완	소나무	150	중대형	祠堂	
운정동	선교장숲	마을뒤	산지	후현무형국보완	소나무갈참나무	100 300	대형	祠堂	
송정동	송정숲	마을中	평지	방풍	곰솔	120	중형		
송정동	동명숲	마을中	평지	방풍	소나무	150	중형		
병산동	병산송림	마을左	평지	좌청룡형국보완	소나무	150	중대형		
포남동	산양숲	마을앞	평지	수구막이	느티나무갈참나무	250	중소형		
구정면 여찬리	여찬리숲	마을中	평지	마을수호	소나무아까시나무	150	중소형	서낭당	

구정리	응봉숲	마을입구	평지	수구막이	소나무	150	대형	서낭당
학산리	오독떼기숲	마을입구	평지	수구막이	소나무	180	중형	서낭목
금광리	금광숲	마을中	평지	수구막이	소나무	120	중소형	서낭목
금광리	성황숲	마을中	평지	마을수호	소나무	100	중형	서낭목
성산면 구산리	구산숲	마을뒤	산지	마을수호	느티나무고로쇠나무	120	중소형	서낭당
구산리	성산숲	마을입구	평지	수구막이	소나무	130	중형	
어흘리	어흘숲	마을中	평지	마을수호	소나무상수리나무	130	중형	서낭당
왕산면 도마리	도마리숲	마을뒤	산지	마을수호방풍	소나무갈참나무	150	대형	서낭당
도마2리	돌탑숲	마을中	평지	마을수호	소나무	200	중형	서낭당
목계리	목계숲	마을앞	하천제방	수해방지	소나무	100	중소형	
대기리	도화목이숲	마을앞	평지	마을수호	느릅나무소나무	150	중소형	서낭당
강동면 정동진	향림	마을중	평지	마을수호	향나무소나무	150	중형	서낭당
옥계면 현내리	들숲	마을뒤	평지	마을수호	느티나무	120	중소형	서낭당
주수리	향만숲	마을앞	평지	마을수호	소나무풍계나무	100	중소형	해신당
금진리	금진숲	마을앞	해변	비사방지	소나무	150	대형	
낙풍리	교향동입수	마을앞	하천제방	수구막이	느티나무외	150	중대형	서낭당
부곡동	송지솔밭	마을뒤	하천변	좌청룡형국보완	소나무	120	중형	장승
망상동	분교숲	마을左	산지	좌청룡형국보완	상수리느티나무	120 500	중형	서낭당
망상동	반운동숲	마을입구	평지	수구막이	소나무	150	대형	단군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용화숲	마을뒤	산지	후현무형국보완	느티나무산죽	120	중형	서낭당
삼척시 도계면 마교리	마교숲	마을앞	하천변	수구막이	소나무	100	중소형	

* 숲의 규모는 소형 100㎡ 미만, 중소형 100~1000㎡ 이하, 중형 1,000~5,000㎡ 이하, 중대형 5,000~10,000㎡ 이하, 대형 10,000㎡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3. 강원 영동지역 비보경관의 사례 조사 분석

3.1 마을 숲

(1) 마을 숲의 배치와 입지적 특성

강원 영동지역 비보적 마을 숲은 고성 1개소, 속초 5개소, 양양 9개소, 강릉 36개소, 동해 3개소, 삼척 2개소 등 총 56개소로 조사되었다(표 1, 그림 1). 마을 숲의 조성 위치는 마을중심으로 볼 때 마을 앞 16개소(29%), 마을 뒤 11개소(19%), 마을 좌 5개소(9%), 마을 우 2개소(4%), 마을 가운데 13개소(23%), 마을 입구 9개소(16%) 등이었다(표 2). 마을 앞이 많은 것은 마을 취락공간이 배산입수의 길지와 지리적 환경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마을 뒤는 입지적으로 선교장 숲(그림 3)과 같이 평야지대에 바람막이의 방재적 기능과, 오죽현 숲(그림 2)과 같이 후

표 2. 마을 숲의 위치

시군별	위치						계
	마을앞	마을뒤	마을옆 (左)	마을옆 (右)	마을 가운데	마을 입구	
고성	1						1
속초	2	1		1	1		5
양양	1	2	3		2	1	9
강릉	11	6	1	1	10	7	36
동해		1	1			1	3
삼척	1	1					2
계	16	11	5	2	13	9	56

표 3. 마을 숲의 입지

시군별	입지					계
	평지	산지	하천	해변		
고성			1			1
속초	2	2	1			3
양양		2	4	3		9
강릉	26	5	4	1		36
동해	1	1	1			3
삼척		1	1			2
계	29	11	12	4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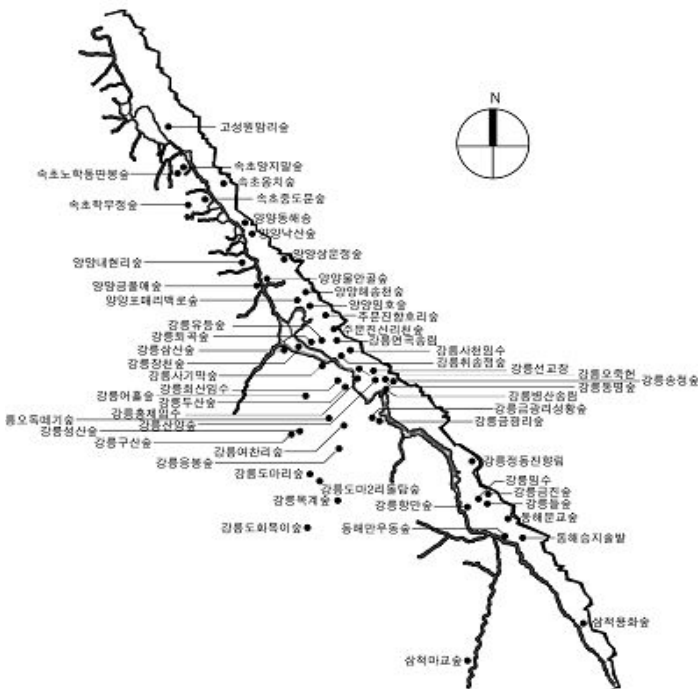


그림 1. 영동지역의 마을 숲 분포도

현무(玄武)의 역할을 위한 것, 용화숲(그림 4)과 같이 마을 뒤에 서낭을 만들고 마을수호를 기원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마을 좌측과 마을 우측의 비보숲은 좌청룡(물안골숲, 그림 5)과 우백호(양지말숲, 그림 6) 용맥의 풍수적 형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형적 입지의 특성을 보면 평지가 29개소로 가장 많고 하천제방을 포함한 하천변이 12개소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태백산맥에서 동해로 흐르는 하천이 많이 발달한 지리적 환경이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마을 숲의 비보적 기능

마을 숲의 기능은 수구막이 22개소와 좌청룡과 우백호 용맥보완 11개소 등 형국보완(形局補完)이 33개소(59%)



그림 2. 오죽현 숲

그림 3. 선교장 숲

그림 4. 용화 숲



그림 5. 물안골 숲

그림 6. 양지말 숲

그림 7. 낙산 숲



그림 8. 외옹치 서낭당

그림 9. 척주비가 있는 육향산

그림 10. 송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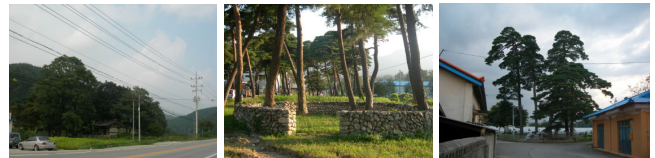


그림 11. 구산 숲 서낭당

그림 12. 오독떼기 숲 서낭목

그림 13. 교향리 서낭목



그림 14. 사천임수

그림 15. 회산임수

그림 16. 사기막 숲

표 4. 마을 숲의 기능

시군별	기능						
	수구 막이	형국 보완	수해 방지	방풍	마을 수호	비사 방지	계
고성	1						1
속초	3	1			1		5
양양	3	2			1	3	9
강릉	13	5	2	2	13	1	36
동해	1	2					3
삼척	1	1					2
계	22	11	2	2	15	4	56

로 가장 많았다. 토속신앙인 마을수호가 15개소(27%)로 그 다음이었고 이밖에 비사방지, 방풍, 수해방지 등 재해 방지 기능의 숲이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마을 숲의 구성수종과 규모

마을 숲의 구성수종은 소나무 순림(純林)이 36개소(64%), 소나무가 우점(優占)하면서 여러 종류의 활엽수로 구성된 혼효숲이 11개로서 소나무가 주 수종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 느티나무 순림 1개소와 느티나무와 기타 활엽

6) 형국보완(形局補完)이란 물형(物形)마다의 특징에서 허하고 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길지(吉地)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물형(物形論)이란 산, 물, 바람 등 모든 것이 아우러져 형성된 전체 모습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유물(類物)신앙의 일종으로 본질적으로 천(天)·지(地)·인(人) 합일 사상에 근거한다. 김두규, 풍수학사전, 2005, p.717

표 5. 마을 숲의 구성수종

수종 시군별	소나무	곰솔	느티나무	느티나무 와 기타 활엽수	소나무와 향나무	소나무와 기타 활엽수	굴참나무	계
고성	1							1
속초	4					1		5
양양	8	1						9
강릉	20	1	1	3	1	9	1	36
동해	2			1				3
삼척	1			1				2
계	36	2	1	5	1	10	1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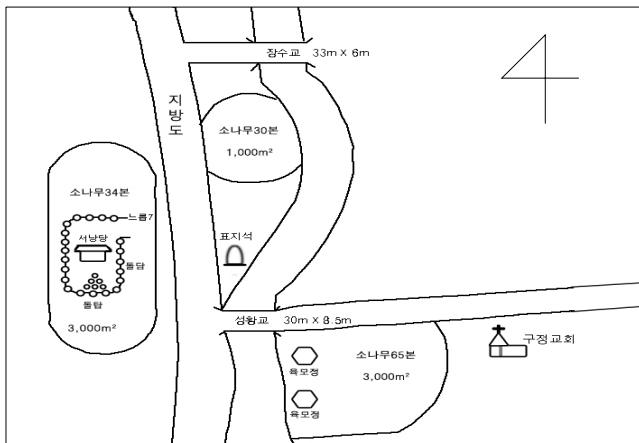


그림 17 구정리 비보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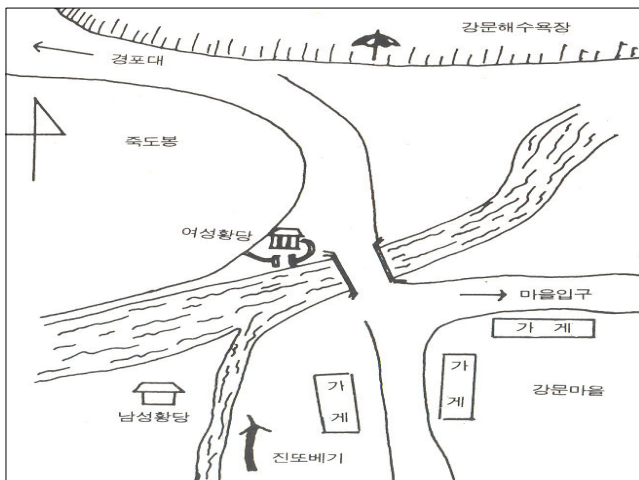


그림 18 강문동 비보현황도

수로 구성된 숲이 5개소, 곰솔 숲 2개소, 굴참나무 숲 1개소가 조사되었다. 수령은 100년에서 200년 사이의 숲이 45개소(8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년 이상된 숲도 11개소나 되었다. 숲의 크기는 1,000㎡ 이하의 중소형 숲과 1,000~5,000㎡의 중형 숲이 각 18개소이고 10,000㎡ 이상의 대형 숲이 14곳으로 조사되었다.(표1)

3.2 강원영동지역의 비보상징물

비보상징물은 풍수적으로 형국에 결함이 있는 곳은 보허(補虛)하고 너무 강한 곳은 압승(壓勝)하며 흉상은 차폐하고 화기(火氣)를 방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비보물이다. 이러한 상징물들의 제 기능은 풍수적 비보기능 이외에도

마을수호신으로의 기능과 축원대상신(祝願對象神)으로의 기능이 있으며, 특히 장승만이 지니는 것으로 이정표와 경계표로서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비보상징물들은 마을의 평안과 무사를 축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을입구에 세워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잡귀·잡신·질병·재앙·액살(厄煞)·도적·산짐승의 침입 등을 방지하고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막음으로서 마을과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마을 신앙적 기능을 하고 있다. 축원대상신으로의 기능은 농어민의 풍농·풍어의 기원은 물론 마을의 복과 가축의 번식 등 마을 공동체의 공통적인 소원과 마을 주민의 한 해의 재수와 행운, 득남 등을 염원하는 신앙적 대상물이기도 하다. 또한 어촌에서는 항해의 안전과 해상사고의 방지까지 기원하는 마을 주민의 향토 신앙적 숭상물이기도 하다. 영동지역의 농촌마을에 조성된 비보상징물은 돌탑 7개소, 솟대 5개소, 장승과 솟대가 함께 있는 곳이 2개소, 비석 3개소, 화기방어를 위한 비보상징물인 소금단지 1개소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9 영동지역의 비보상징물 분포도

(1) 비보돌탑

우리의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입구에는 막들로 쌓은 돌탑이 있다. 이는 장승이나 솟대와 마찬가지로 마을을 수호하고 비보하기 위한 조형물이다. 강릉 왕산면의 도마1리, 도마2리, 목계리 등에 각각 돌탑(그림 21, 22)이 1기씩 남아 있다. 임계로 넘어가는 삼당령과 왕산면 저수지 사이에 나란히 이웃하여 이 세 마을에 세운 돌탑은 마을 지형이 행주형(行舟形)인 이곳을 비보하기 위해 쌓은 탑으로, 배형국인 세 마을의 복운을 담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영원히 정박하도록 하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비보상징물이다.7) 이와는 달리 동해시 삼화동의 돌탑은 가난을 면하기 위하여 가운데에 소금단지를 넣고 탑(그림 23)을 쌓은 후 근검절약하여 부자마을이 되었다고 하며 탑의 명칭도 가난을 물리친다는 뜻으로 척빈탑(斥貧塔)이라 한다. 처음에는 마을입구에 있었지만 현재 도시개발로 마을 가

7) 답사 및 면담 제보 : 홍수영 씨, 84세, 2008년 10월 04일

표 6. 영동지역의 비보 상징물

상징물	소재지	위치	입지	기능	비고
돌탑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마을앞	평지	마을수호	서낭당돌탑
	강릉시 도마1리	마을앞		行舟形비보	소멸
	강릉시 도마2리	마을중	평지	行舟形비보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마을앞	평지	行舟形비보	꼭지돌 멸실
	동해시 삼화동 8통	마을앞	하천변	마을수호	서낭당돌탑
솟대	동해시 삼화동 10통	마을중	평지	척빈(斥攢)	
	강릉시 사기막리	마을앞	평지	수구막이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마을앞	하천제방	수구막이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마을앞	해 변	해상안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마을입구北	해 변	마을수호	
장승·솟대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마을입구南	평 지	마을수호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마을앞	평 지	해상안전	소멸
소금단지	속초시 대포동	마을앞	해 변	해상안전	
	강릉시 강문동	마을앞	해 변	해상안전	포구
비석	삼척시 원덕읍 비화리	마을뒤	산정상	화기방어	해신당
	삼척시 정상동	마을앞	해 변	해상안전	적주동해비
	삼척시 정상동	마을앞	해 변	해상안전	평수도관비
비보못	양양읍 조산리	마을左	해 변	해상안전	동해신묘비
	강릉시운정동	선교장입구	평 지	地氣瀾漚방지	활래정연지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준경묘입구	평 지	지기누설방지	준경묘 지
	양양군 서면 용천리	마을앞	평 지	지기누설방지	용천못 소멸

운데에 남아있다. 삼화동 8통 돌탑은 삼화동 마을입구 서낭당에 있던 것이 시멘트 공장부지로 마을이 수용되어 이주한 뒤로는 하천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그림 20), 원주민들에 의하여 제사는 계속 지내고 있다. 삼화동 돌탑과 같이 서낭당 돌탑에 연결된 탑은 강릉시 구정리에도 있는데(그림 24), 독립탑이 아니고 돌탑에 연결시킨 탑이다.

(2) 장승

장승은 나무기둥이나 돌기둥에 사람 얼굴 또는 귀면(鬼面)의 형상을 상부에 그리거나 조각하고, 하부에 천하·지하대장군·오방위신장(五方位神將) 등의 명문 또는 이정(里程)을 기록한 상징물인데, 마을이나 사찰의 입구 또는 길가에 세워져 제액(除厄)·마을수호· 이정표로서의 기능 및 땅이 허 한곳에 세워 비보하였다. 속초 대포동 외옹치 마을은 원래 옹치산 남쪽 바닷가와 북쪽 산록에 마을이 있었다. 구전에 의하면⁸⁾ 1984년 해일과 산사태로 남쪽마을에 대재앙이 있을 후 북쪽 언덕너머에 새 부락이 형성되었고 지금은 장승과 솟대가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세워져 있다(그림 29). 마을이 형성된 것은 300여년 전으로 추정 되는데 숲속에 서낭당이 있고(그림 8) 당초 마을입구 좌측과 우측에 장승과 솟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3) 솟대(집대)

솟대는 가늘고 긴 장대나 장간형의 석조물을 단독으로 또는 장승과 함께 마을입구나 신역(神域)에 세우고 정상부에 나무 혹은 돌로 한 마리 또는 두세 마리를 올려놓은 비보 상징물이다. 최근에는 반영구적인 철제 솟대(그림 33, 34)도 있다. 명칭도 강원 영서지역에서는 주로 솟대로 불리 우는데 영동지역에서는 집대·진또배기·진대·오릿대 라고도 한다. 이 솟대는 강원 영서지역에 비하여 하천(그림 31)과 바닷가(그림 32)에서 많이 조사되었는데 풍랑



그림 20. 삼화동 돌탑 그림 21. 도마2리 돌탑 그림 22. 목계리 돌탑



그림 23. 삼화동 척빈탑 그림 24. 구정리 돌탑 그림 25. 사기막 돌탑



그림 26. 척주동해비 그림 27. 동해신묘 그림 28. 해신당 원경



그림 29. 외옹치 장승·솟대 그림 30. 강문동 진또배기 그림 31. 낙풍리 솟대



그림 32. 도직리 솟대(시멘트) 그림 33. 금진리입구 (남)솟대 그림 34. 금진리입구 (북)솟대



그림 35. 심곡리 서낭당 그림 36. 비화리 간물비보(정상에 소금단지) 그림 37. 진또배기 (근경)

으로 인한 해상사고의 방지를 목적으로 세운 것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강문동의 솟대(그림 30)는 경포호에서 흐르는 물이 죽도봉 아래 여서낭당과 진또배기 숲속의 남서낭당과 함께 서낭제 때의 대상신(對象神)이다.⁹⁾ 금진리 솟대(집대)는 마을의 남·북쪽 양 입구에 세워져 있다(그림 33, 34). 원래는 소나무로 만들었는데 현재의 것은 1978년에 쇠로 만들었다. 새 한 마리는 박을 향하고 나머지 두 마리는 마을을 향하여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주문한대로 제작되지 않아 방향이 갖는 의미가 없다¹⁰⁾. 낙풍리는 강릉에서 삼척으로 가는 고속국도 옥계 인터체인지 부근에 위치한

8) 답사 및 면담 제보 : 김병국 씨, 74세, 2008년 11월 23일

9) 답사 및 면담 제보 : 손재복 씨, 70세, 2008년 11월 13일
10) 답사 및 면담 제보 : 김봉남 씨, 72세, 2008년 11월 23일

농촌지역이며 ‘조선의 입수’에 교향동 입수로 소개된 곳이다. 고려시대에는 이 지역이 옥계현으로서 이 일대의 중심지였고, 조선시대에는 옥계장이 열렸던 곳이다. 낙풍리 집대는 마을입구에 있는 서낭당에서 약 300미터 앞 제방위에 있다(그림 31). 오리의 방향은 바다 쪽인 동쪽, 강릉 방향의 북쪽, 동해시 방향의 남쪽을 향하고 마을을 향한 것은 없다.¹¹⁾ 도직리 솟대(집대)는 철길과 고속도로 건설로 마을이 이주하면서 시멘트로 기둥을 만들었고(그림 32) 세마리의 오리는 쇠로 만들었다.¹²⁾

(4) 비석

삼척시 정라진 육향산에는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가 있다. 해일을 물리치는 신통한 위력이 있다하여 퇴조비(退潮碑)라고도 한다. 조선 숙종 때의 허목(1595~1682)이 삼척 부사로 재임시에 극심한 해일의 피해를 막고자 동해송(東海頌)을 짓고 이를 새겨 1661년에 세운 비이다.¹³⁾

(5) 소금단지(간물비보)

삼척시 원덕면 노곡과 임원사이의 비화리(飛火里)에는 20여 호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으며 해신당 너머 바닷가에는 조그만 어항이 있다. 비화리는 ‘나불메기’라고도 하는데 이는 날(飛), 불(火), 메(山)라는 의미를 지닌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지명에서 보듯이 불이 자주 나 그 화기를 누르기 위해 산봉우리 양 끝(그림 36)에 화기를 없애기 위해 향아리에 소금물을 넣어 묻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였다. 강원지역 이외의 소금단지에 관한 기록은 해인사와 관악산에도 전해진다.

3.3 비보 못

강원 영동지역의 비보 못은 선교장의 연지와 준경묘 앞의 못 그리고 소멸된 양양의 용천못이 조사 되었는데 모두 지기(地氣)¹⁴⁾를 머물게 하기 위한 비보 못이다. 강릉선교장의 연지는 기(氣)가 허하게 보이는 좌청룡 끝부분 수구가 넓은 부분에 연지(그림 39)를 조성하고 활래정을 세웠다. 삼척의 준경묘는 이성계의 5대조인 이양무의 묘소로 알려져 있는데, 묘좌는 서쪽(西坐)에서 부인의 묘소인 동쪽(卯坐)의 영경묘와 마주 바라보고 있다. 형국이 잘 갖추어져 있는 명당이지만 우백호 용맥쪽으로 비보 못(그림 38)을 조성하였다. 양양의 용천못은 낮은 구릉을 등지고(背山) 형성된 마을 입구에 있었는데, 오래전에 소멸되어



그림 38. 준경묘 비보못(우측)

그림 39. 선교장 연지

그림 40. 용천못 터

터(그림 40)만 남아있다.

4. 마을 비보경관자원의 문화적 가치

우리의 농촌 취락경관은 전방에는 논이 있고 마을 입구에는 정자목이나 마을 숲, 돌담, 선돌, 장승, 솟대 등이 있으며 마을 뒤와 좌, 우에는 산으로 둘러 싸여져 한편의 풍경화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문화가 전래된 농촌경관은 오랜 기간 동안 선조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정주하기 위해 자연을 대하는 기본적 원리와 전통적인 지혜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생활문화공간이다. 특히 마을 숲은 마을의 역사·문화·신앙·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마을 사람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숲으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보호되어 온 숲이다. 농촌마을에 보존, 전승되어온 현존 비보 숲 및 비보상징물 등은 토착 신앙적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으로서, 풍수적으로는 좋은 땅을 조성하는 구조물의 역할을 한다. 경관적으로는 경승의 장소이며, 경관을 조망하는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이용과 관련해서는 휴식·집회·놀이·운동 등과 같이 여러 활동을 수용하는 공간이다. 또 홍수, 소음 등 재해를 막아주는 보호 조절장치이며, 외부로부터 시각을 차폐하는 구조물인 동시에 마을의 영역을 경계 짓는 상징적 장소로서의 역할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농촌마을의 복합 문화체이다.

강원 영동지역은 태백산맥이 한반도 동측에 치우쳐 동해안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마을의 입지는 비교적 폭이 좁고 길게 연결 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입지가 평면적이고 내륙으로의 도시 확장과 성장은 쉽지 않지만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과 동해의 해변 풍경자원,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길게 식생하는 해안 숲이 조화를 이룬 특색 있는 농·산·어촌 경관이다. 강원 영동지역도 일반 농촌경관에서와 같이 비보적 마을 숲은 대부분이 마을 앞에 비보적 수구막이 숲 등이 주류를 이루며 농촌마을의 주 경관 요소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 해안을 따라 형성된 해안림과 그 주변에 비보적 경관물을 지닌 마을이 다수 존재해 해변을 찾는 도시민의 전통문화형 농촌마을 체험의 장으로서의 연계 및 활용성이 높아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문화경관 자원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 답사 및 면담 제보 : 이상영 씨, 80세, 2008년 11월 23일
 12) 답사 및 면담제보 : 이상 김영석 씨, 46세, 2008년 11월 25일
 13) 조선 현종10년(1660) 허목이 1660년 삼척부사로 부임할 당시는 동해안 특히 삼척지역에 해일이 극심하여 백성들의 피해가 컸으므로 허목이 이를 안타까이 여겨 이 비석을 세우자 해일의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김의숙, 강원민속학 17집, 2003, p.127
 14) 비보 못의 기능은 못을 조성함으로써 지기가 흘러 버리지 않고 머물게 하는 지기정류(地氣停留), 수기(水氣)로써 화기(火氣)를 막는 화기방어, 흘러버리는 용(龍) 형세의 지맥을 잡아두는 지맥결인(地脈牽引), 못에 흥한 자연물의 모습을 비치게 하여 그 흥기를 사라지게 하는 흥상소설(凶相消泄), 서로 다투는 듯한 형세의 사이에 가로놓아 상충되는 지세의 격절(隔絶)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득수비보의 한 방법이다. 최원석, 영남지방의 비보, 2000

5. 결론

강원 영동지역 6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비보적 개념을 지닌 마을 숲, 비보상징물, 기타 비보시설을 대상으로 그 유형별 비보특성과 입지, 형태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마을 숲 56개소, 비보 상징물 18개소 및 비보 못 3개의 유형이 각 지역 별로 보존, 전승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농촌 마을의 다수를 차지하는 마을 숲은 농촌 취락공간의 우세적 경관요소로서 각기 그 특성을 지니고 마을 주변에 존속하여 왔다. 마을 숲이 조성된 곳은 마을 앞이 가장 많고 마을 뒤와 마을 가운데 순이었다. 이는 계곡풍을 막기 위한 바람막이와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의 수해방지 기능, 또 풍수적 수구막이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마을 숲의 지형적 입지는 평지에 조성된 곳이 많고 다음이 하천변이었다. 마을 숲에 식재된 수종은 주로 소나무 단순림인데 수관이 빼어나고 줄기가 통직한 전형적인 강원도 소나무(강송)였다. 경관적 입지는 동산형이 많고 동구형, 하천형, 해안형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영서지역 및 다른 지방에 비하여 하천형이 많은 것은 태백산맥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많은 지형적 특징으로 보인다.

비보상징물로는 돌담이 7개소, 솟대 5개소, 솟대와 장승이 함께 있는 곳이 2개소, 비석은 3개소, 화기방어를 위한 소금단지가 1개소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치별로 보면 마을 앞이 12개소, 마을입구 2개소, 마을 뒤 1개소, 마을 가운데 2개소, 마을 옆(좌)이 1개소 등 이었다. 비보 못은 3개소로 조사되었는데 1개소는 이미 소멸되었다. 비보 경관물 중 장승은 산골 내륙의 강원 영서지역에 비하여 그 수가 적었다. 그러나 솟대는 농업과 함께 어업에 종사하는 강원 영동지역의 특징상 강원 영서지역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해상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비보적 상징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원 영서지역에서는 장승과 솟대가 같은 곳에 있는 것이 대부분 이었는데, 강원 영동지역에서는 외옹치 이외에는 대부분 솟대만 있었다.

돌담은 마을 앞에 쌓아 놓은 것도 있지만 서낭당을 비롯한 제당의 돌담에 연결하여 축조한 것이 특이하다. 영동지역에 조사된 비보적 소금단지는 화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산 정상에 소금단지를 묻는 간물비보로 전국적으로 드물어 희소 가치가 있는 비보물이다. 과도와 해일을 잠재우기 위한 삼척의 척주동해비와 평수도찬비, 양양의 동해신묘는 강원 영동지역만의 비보경관이라 할 수 있다. 서낭당 이외에 해신당이 조사되었는데, 이 해신당은 자주 변하는 기상조건하에서도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가 작업을 해야 하는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원하는 마을 신앙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강원 영동지역에는 마을 숲을 비롯하여 비보 개념적 향토문화자원이 농·산·어촌 곳곳에 잔존하고 있지만 봄철 건조기의 산불과 가뭄, 하절기의 태풍과 함께 오는 게릴라성 호우와 동절기 폭설로 인한

특이한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귀중한 경관자원의 보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체계적 보존 관리가 아쉬운 실정이다. 향후 농·산·어촌의 문화적 전통 경관의 지속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역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관적 측면에서의 비보의 보임과 경관요소로서의 기능 및 각 지역별 비보의 차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강원도, 수목 군락지(기존숲) 현황, 1998
2. 김덕현, 전통촌락의 洞藪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3호, 1986
3. 김두규, 풍수학사전, 비봉출판사, 2005
4. 김두하, 벽수와 장승, 집문당, 1995. pp.646~650
5. 김의숙, 강원도의 돌담신앙, 강원민속학 제9집, 1992. pp.5~20
6. 김의숙, 비보풍수연구, 강원민속학 제17집, 2003. pp.103~144
7. 김학범, 장동수, 마을숲, 열화당, 서울, 1994
8. 국립 민속박물관, 강원지방 장승·솟대신앙, 민속박물관 학술총서 권6, 1988
9. 남연화, 마을숲의 유형과 활용방안에 관한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0. 문화재청, 문화재 자원조사 종합 보고서, 2007
11. 생명의 숲, 조선의 임수, 지오북, 서울, 2007
12. 서운길, 도선과 그의 비보사상, 한국불교학 1, 1975
13. 신종원, 裨補長生の 起源과 概念에 대한 試論, 史學研究 31호, 1980
14. 유종덕, 윤영환, 최장순, 강원 영서지역 농촌마을의 입지와 비보(裨補)경관과의 관계,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1권, 1호, 2009. pp.9~16
15. 유증선, 안동의 비보풍수신앙전설과 그 배경, 안동문화총서 권1, 1973. pp.151~171
16. 윤영환, 김학범, 장동수, 김정태. 후정공원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5권,1호 1997. pp.33~47
17. 윤영환, 김학범, 장동수, 김정태. 강원도 동해안지역 정주지구성요소로서 풍숲(風藪)의 경관과 그 효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6권,1호 1998. pp.59~81
18. 이대우, 한국 생활풍수와 조경, 일진사, 서울, 2006
19. 장병관, 황보철, 옷골마을 비보경관의 환경생태적 의미, 한국조경학회지 36권,2호, 2008. pp.32~41
20. 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민음사, 서울, 1990. pp.642~643
21. 최원석, 한국의 풍수와 비보, 민속원, 서울, 2004

(接受 : 2009.04.10)